

討論「朝鮮學者들의 地轉說」

1975. 11. 28

金錫文의 地轉論과 그 論據

東國大 李 龍 範

金錫文의 이른바 「三大九宇宙說」은 朴趾源의 熱河日記에 紹介되어 있어 일찍부터 그것이 從來의 中國의 宇宙觀과 다른 獨創의인 것이었다고 보는 學者도 있었으나 그 內容과 金錫文의 經歷 같은 것은 거의 수수께끼에 싸여 있었다. 拙稿「李瀛의 地動論과 그 論據」를 草할 때 티코 브라헤의 宇宙體系일 것이라는 推斷만으로 그 以上の 論斷을 내리지 못하였던 것도 史料가 없었던 까닭이다. 그러나 多幸히도 閔泳珪教授께서 金錫文이 著述한 「易學圖解」를 發見하여 그 속에 金錫文의 三大九宇宙說이 담겨 있는 것을 밝히는 한편 抱川邑誌 등에서 그의 經歷을 널리 紹介한 것은 이 方面의 研究를 위하여 多幸이었다.

閔泳珪教授께서 公開한 易學解의 節抄本은 金錫文의 全 思想體系의 一部에 지나지 않으나 이 節抄本을 通하여 알려진 三大九說의 正體는 羅雅谷(Jacques Rho)가 撰하고 湯若望(Adam Schall von Bell) 訂의 五緯曆指에 보이는 티코 브라헤의 宇宙觀인 것은 먼저 밝혀 두어야 하겠다. 즉 五緯曆指에 「地球는 恒星의 三天의 心이 되고 있다」라 하고 地球를 中心으로 日과 月이 그 周圍를 周轉하며 水·金·火·木·土星은 地球를 周轉하는 太陽의 周圍를 周轉한다는 것이다.

李瀛의 地轉說이 中世까지의 西洋宇宙觀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의 十二重天說을 바탕으로 하였는 데 비하여 이보다 三〇~四〇年前인 金錫文은 李瀛의 學問體系에 消化된 楚辭의 九大說에 새로 紹介된 티코 브라헤의 學說을 巧妙하게 結付시켜 易理의 正當性을 數衍하여간 것이 對照的이라고 하겠다.

中世의 西洋宇宙觀을 바탕으로 하여 地動說을 提唱하였으나 孔子의 「天은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一句에 그 所信을 後退시킨 李瀛에 比하여 朱子學을 바탕으로 地轉說을 主張하고 그 所產을 끝까지 固守하기 위하여 中國에 消化된 西洋神父의 宇宙觀뿐 아니라 朱子의 說까지도 部分的으로 批判하게 된 것은 앞선 것이었다.

그 宇宙觀 自體가 새로운 獨創이라고 하기보다는 當時에 있어서는 禮敎의 座標였던 朱子의 權威에 承服하지 않았다는, 즉 韓國思想史에서 크게 다루어져야 할 學說이었다.

특히 萬物의 生成과 宇宙의 現象 및 成長, 그리고 消滅에 대한 張載 邵雍 등 朱子學에 吸收된 諸學說으로써 이 宇宙의 森羅萬象을 說明한 金錫文의 世界觀은 新知識과 舊思想의 結着이라는 點에서 過渡期의 思想家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나 그 雄壯한 世界觀은 洪大容의 循環論的인 世界觀에 繼承되었던 것은 易學圖解와 湛軒書를 比較하면 容易하게 看取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뿐 아니라 李圭景의 五洲衍文長箋에 보이는 「地移轉運辨證說」이 또 이 易學圖解에 보이는 宇宙觀을 要約한 것이었던 것으로 보아 自然科學의 研究를 위한 著書가 아니고 易理의 合理性을 數衍하기 위하여 援用한 金錫文의 地轉說은 그 當初의 意圖를 벗어나 自然科學에 對한 興味를 刺戟시키는 데 이바지하였다는 우리 國史上에서는 著者의 意圖보다 더 큰 成果를 거두었던 것이다.

朝鮮學者들의 地轉說에 대하여

誠信女師大 全 相 運

朝鮮學者들이 地轉說을 주장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독창적인가, 또는 西유려의 地動說(太陽中心說)과 비교될 수 있는가 하는 데 있다.

朝鮮學者들의 地轉說에 대한 지금까지의 學界의 관심은 사실상 洪大容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그리고 여러 학자들이 洪大容의 地轉說은 獨創的이라고 하고 높이 評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제일 먼저 異議를 제기한 분이 千寬宇氏였다. 그는 1965년에 발표된 논문에서, 洪大容의 地轉說은 그의 독창적이기 보다는 中國을 통해서 들어온 西洋學說에서 示唆를 받은 흔적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1968년에 戴內 淸(야부우찌 기요시)교수도 같은 견해를 나타냈다. 千寬宇氏는 洪大容의 저술내용을 세밀히 검토한 끝에 그러한 결론에 도달했고, 戴內교수는 東洋天文學史의인 입장에서 서서 그 당시 洪大容과 中國에 와 있던 예수會士와의 학문적 교류상황을 보아서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나는 또 다른 각도에서 검토하여 위의 두 학자와 같